

오만에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 정상화 노력 설명 및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요청

- 최상대 2차관,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중간보고회를 위해 방한한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양국의 건전재정 노력 논의
- 지난 4월 6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에게 재정 당국의 적극적 지원 노력을 발표한 데 이어, 오만 정부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당부

- 최상대 제2차관은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중간보고회를 위해 방한한 나세르 알 자스미(Nasser bin Khamis Al Jashmi)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장관급)과 만나 한국의 재정정책 정상화 노력을 설명하였다.
- 최 차관은 한국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 본질적 역할(치안·국방·보훈 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특히,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 비전 2050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에, 나세르 알 자스미 사무총장은 오만도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에게 보다 발전된 모습을 물려주기 위해 비전 2040(Oman Vision 2040)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특히, 비전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이 핵심으로 오만 재정 당국도 첫 중기재정 계획(2020-2024) 등 재정 건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최 차관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만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	재정정책국	책임자	과 장 하태원 (044-215-5480)
	재정정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권준수 (junsu195@korea.kr)